

### PI첨단소재, 차세대 고사양 PI Film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결정

- ▶ 5G, 디스플레이용 및 EV 용도 등 차세대 고사양 PI Film 생산을 위한 투자
- ▶ 신규 라인 증설을 통해 시장지배력 강화 지속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폴리이미드(PI) 필름 전문 제조사 PI첨단소재(178920)는 약700억원을 투자해 600톤/년 생산규모의 신규 라인 1개 호기를 증설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투자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2년말까지이며, 증설이 완료되면 PI첨단소재는 진천, 구미공장에 총 8개의 필름 생산라인과 1개의 바니쉬 생산라인을 보유하게 되며, 현재 3,900톤 규모의 필름 생산능력이 4,5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신규 라인은 5G, 디스플레이, EV 등 신규 용도이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차세대 고사양 PI필름 생산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및 EV 관련 제품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모바일 관련 매출 외에도 신규 용도의 매출을 늘려 시장 지배력 강화 및 압도적인 생산/판매 글로벌 1위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또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친환경 생산 설계를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는 한편,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PI첨단소재는 하반기 신규 비즈니스 및 PI 적용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OLED 소형 모바일 및 중대형 TV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신호 연결 역할을 하는 CoF(Chip on Film)용 필름이 최종 승인을 끝내고 본격 양산에 들어가 현재 일본 수입산이 독점하고 있는 CoF를 국산제품으로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EV용도는 EV 배터리 절연용 PI필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EV 모터 권선용 바니쉬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5G용 저유전 PI필름(MPI) 시장은 업계 최저 수준의 저유전손실율(Low Df, Dissipation Factor) 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양산 판매중인 6GHz 용 외에도 28GHz용까지 개발하여 향후 5G통신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I첨단소재는 종합첨단소재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IT디바이스용 소재부터 고속성장하고 있는 5G, 전기차용,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용 등 다양한 특수용도소재까지 다양한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PI첨단소재 IPR 담당: 031-436-8635**